



앞서가는 학회

To be Advanced KIHA

이 종 정 감사

Lee, Jong-Jung <Auditor>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속도의 경쟁에 따라가는 것은 낙오다. 선점 위보다 신속성 우위가 경쟁력인 사회로 어느덧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학회 심포지엄의 21세기 병원에 대한 변화의 개념에서와 같이 고대의 본능적 치료에서 현대의 종합적인 의료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현재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IHS화 정보통신화로 미국의 의료계는 병원 Network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Network System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각에도 빠른 발전 속도의 첨단기술이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18개월만에 기술이 두 배 이상 발전한다는 무어(MOORE) 법칙, 미국의 야심적인 생물 프로젝트인 신비의 인간게놈 유전자 해독이 5년만의 완성기간에서 DNA와 DHA를 이루는 30억 개의 염기를 처음 10억 개의 해독은 4년에, 다음 10억 개는 4개월, 나머지 10억 개는 단 3개월 걸려 지도를 완성하므로 질병예측을 가능케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만들고 DNA에 직접 작용하는 제3세대 신약이 2010년 개발되며 발병원인이 되는 유전자치료, 노화, 항암제, 만성퇴행성 질환의 치료가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컴퓨터의 성능발전이다.

이 컴퓨터가 2015년이면 테라비트(Terabit 1012bit)의 속도, 가까운 장래에 등장할 차세대 컴퓨터는 기가 비트(Gigabit) 보다 1천 배나 빠른 메모리를 구현한다. 가히 속도의 혁명인 것이다.

컴퓨터학자 레이커즈와일은 2020년쯤이면 개인용 컴퓨터가 인간두뇌를 따라 잡을 것이라며 2029년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사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전문가 시스템(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추론)은 환자의 증상 생활양식의 테스트 결과 그리고 관련된 사실을 입력받아서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치료약까지 처방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러한 21세기 신기술들을 수용하든 또는 거부하든 간에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과도기에 의료시설 계획의 미래에 대비한 융통성은 무엇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케임브리지 평생교육원 앞에 세워진 표어에 실마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21세기에 살아 남고 번성하는 길”

- 에너지와 활력
-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 열린 마음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
- 문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아무도 전망하기 어려운 변화와 창조 그리고 속도의 21세기에 우리학회가 앞서 달려 회원 모두에 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에 힘을 실어주자

www.kci.go.kr